

전자신문

1면: 2005. 1. 19

차세대 PC 육성 '1·2·3전략' 추진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7년까지 세계 3대 차세대PC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소 1개, 매출 500억원 이상의 회사 2개, 세계적인 제품 3개를 만드는 이른바 '1·2·3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차세대PC 플랫폼 표준을 선점하고 핵심 지적재산권(IPR)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통부 IT SoC 및 차세대PC 프로젝트매니저(PM)인 유희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18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조찬강연에서 "차세대PC는 통신·컴퓨터 융합기기에서 '입는(웨어러블) 컴퓨터' '먹는 컴퓨터' 등으로 진화해 5년간 세계시장 36%, 국내 시장 56.6%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또 "1·2·3 전략"을 통해 웨어러블PC 등 부착형 컴퓨터기기의 운용체계(OS)인 리얼타임OS 등 핵심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유 교수는 "오는 2006년 리눅스 기반의 리얼타임OS를 개발하고 2008년 저전력OS, 2010년 웨어러블OS 등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면서 "OS 분야 권위자인 신강근 미시간대 교수 그룹 5~6명과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세대PC시장(PDA 등 포함)은 2007년 세계시장 354억달러, 2010년 778억달러로 예상됐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